

보도해명자료

(’13.12.18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, 에너지계획 세우며 전기비중 부풀렸다
기사관련 (’13.12.18, 경향신문)

1. 기사내용

- ☐ “요금인상을 통한 수요감소 방안을 반영하지 않고 전기비중을 부풀렸다(’35년 전력비중 27.6%, 年 2.47% 증가)”고 보도

2. 등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☐ 에너지 수요전망 작업에는 에너지 경제연구원, 온실가스 정보센터, 교통연구원, 건설기술연구원, 에너지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상호검증을 통해 확정

* 전력수요 전망시에는 인구·유가뿐만 아니라 경제성장·소비실적·산업 구조 변화 등을 주요입력 변수로 활용

- ☐ 우리나라의 2035년 전력비중 27.6% 전망의 경우 2010년 일본의 전력비중(26%)과 비슷한 수준

* 전력소비는 경제성장·국민소득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

- ☐ 요금인상 등을 통한 전력수요 감축은 수요전망(기준수요:BAU)이 아닌 **최종수요치**에 반영

* [기준수요(BAU)] - [수요감축목표] = [최종수요]

- 최종수요는 ‘35년 70.2백만TOE(연평균 2.5% 증가)가 아니라 **15%가 감축된 59.9백만TOE(연평균 1.8%)**임

※ 관련 문의 : 에너지자원정책과 주영준 과장(02-2110-4868)
신용민 서기관(02-2110-4870)